

AI 기반 미래전략·초광역 비전 전국에 알린다

시·도,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홍보관·전시관 운영
‘광역철도 모형도’ 공동 설치…초광역 협력 의지 강조

광주시와 전남도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각자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략과 지역 혁신정책을 선보인다. 시·도는 공동 의제인 초광역 협력 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광주·전남 동반 미래’의 청사진도 공유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

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포용과 혁신의 도시, AI로 여는 미래 광주’를 주제로 광주홍보관을 운

영한다. 핵심축은 광주형 AI 산업을 실증·확산하는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와 AI 모빌리티 산업이다. AX 실증밸리는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현장 실증·서비스 확산까지 연계하는 플랫폼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모두가 활용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AI 센서·차량제어·주행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 AI 모빌리티 산업도 광주시가 집중 육성하는 분야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확대되면서 광주는 미래 교통혁신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AI 미디어아트 체험과 AI 인바디 분석 등 시민친화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이 실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미래산업 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생활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행안부가 선정한 기본사회 우수사례 20건 중 돌봄 분야 대표사례로 뽑혀 별도 전시관에도 선보인다.

전남도 전시관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엔진, AI 에너지 미래도시 전남’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남은 AI·에너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며 AI와 에너지 융합정책을 집중 홍보한다. 해상풍력·태양광 모형을 활용해 관람객이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받아 기념품으로 바꾸는 체험형 ‘에너지 기본소득존’도 운영한다.

또 최근 전남에 유치한 글로벌 AI·에너지 엔지니어링의 초대형 프로젝트, 우주산업, K-드즈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도정 핵심 시책도 미디어월과 고화질 영상

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광주와 전남이 전시관 입구부터 공동 메시지를 연출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는 전시관 공동 입구에 특별광역연합 1호 공동사무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모형도를 배치해 호남권 초광역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시·도는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선포한 이후 광역철도 구축, 산업·교육·문화 분야의 공동 전략을 마련하며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서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인 ‘5극 3특’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성과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유자 하이볼 시럽’ 개발

간 기능 강화…나리루틴·올리고당 함유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을 대표하는 특화 작목인 유자를 활용한 간 건강 기능을 더한 ‘유자 하이볼 시럽’을 개발했다.

유자는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케이(K)-푸드이자 수출 효과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미지와 함께 우수한 맛·품질·향을 인정받아 글로벌시장에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은 위스키 등 증류수에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더해 가볍게 즐기는 음용 방식으로, 높은 도수보다 청량감과 향미를 강조하는 트렌디한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당류 부담을 낮추고 간 건강 기능성을 강화한 하이볼

시럽을 전남대학교와 공동 개발했다.

효소를 이용해 당을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유자의 기능성분인

‘나리루틴’과 ‘올리고당’을 함유한 간 보호용 유자 하이볼 시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프로세스바이오킬레스트리(Process Biochemistry)’에 게재되며 학술 가치도 인정받았다. 또 개발된 기술은 전남 유자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계획이며, 하이볼뿐만 아니라 유자의 상큼한 풍미가 결집된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보배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이번 기술이 유자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면역세포 ‘정밀 조절’ 규명

세계 최초…자연발효·종균발효 등 효과 확인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가 인체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섭취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서 필요한 방어 기능은 높이는 조절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상 기반의 단일세포 분석을 통해 김치의 면역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과제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위약 △자연발효 김치분말 △종균발효 김치분말을 각각 섭취하도록 한 뒤, 실험 전후로 채취한 말초혈액단핵세포(PBMC)를 이용해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scRNA-seq)을 실시했다.

이 기술은 면역세포 개발 수준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 일반적인 검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섬세한 면역 반응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김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외부 병원체를 감지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항원제시세포(APC)’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D4+ T세포가 방어와 조절이라는 두 역할로 균형 있게 분화해, 김치가 면역을 무작정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조절하는 ‘정밀 조절자(Precision regulator)’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효 방식에 따른 차이도 분명했다.

자연발효·종균발효 모두 긍정적인 면역 조절 효과를 보였지만, 종균발효 김치에서는 항원 인식 능력이 더 강해지고 불필요한 면역 신호는 억제되는 등 조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종균 기술을 통해 김치의 건강 기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적극 지원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가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보성 ‘보림제다’, 농식품부 우수사례경진 ‘대상’

유기농 녹차 가공…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 성과

전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적극 지원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가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구례 지리산피아골

식품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전문 심사위원의 발표 심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보림제다는 1996년 고 서

양원 명인이 설립한 유기농 녹차밭을 기반으로 지역 유기농 녹차 농가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유기농 녹차업을 확보하고, 이를 가공·판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의 매입률이 80% 이상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며 보성녹차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 게임기업 ㈜에니뉴 등
도쿄게임쇼서 경쟁력 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도쿄게임쇼 2025’ 전남글로벌게임센터(JNGC) 공동관이 전시와 비즈니스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도내 게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선 전남의 게임기업 ㈜에니뉴와 ㈜에이코더가 참가해 총 27건의 B2B 미팅을 성사시키며 해외 퍼블리셔와의 협력 기회를 타진했다. 특히 ㈜에이코더는 ‘어스토피시야 스토리’를 앞세워 17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활발한 투자 및 유통 논의를 이어갔다.

퍼블리케티 기간에는 약 2150명의 관람객이 JNGC 공동관을 직접 찾았고, 1400명 이상이 전시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게임에 대한 실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 서베이에도 약 300명이 참여해 기업 콘텐츠에 대한 반응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도쿄게임쇼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렸으며, 총 1136개 기업이 참가하고 4157개 부스를 운영했다.

전시장을 찾은 총 관람객 수는 26만 30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전시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위해 퍼블리케티 입장 인원을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마트, 식탁 물기안정 ‘온힘’
23일까지 치킨·고구마 등 할인

이마트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식탁 물기안정에 나선다.

우선 가정비 치킨 ‘아메이진 완벽치킨’을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25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국내산 8호 냉장 닭(조리 전 중량 751~850g)을 사용했으며 얇고 튀김옷을 입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점이 특징이다.

햇굴, 고구마 등 겨울 간식도 출동한다. ‘첫수확 조생햇굴(2.5kg)’은 신세계 포인트 직접 시 6000원이 할인된다. 햇굴은 시세가 작년 대비 20~30% 올랐지만 이번 행사가격은 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SNS 인기 레시피 ‘고통지(고구마+눔지)’ 열풍에 ‘고구마 무한담기’ 행사도 준비했다. 고통지라는 고구마를 납작하게 눌러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구워 먹는 간식이다.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를 규격화된 봉투가 팩 채워질 만큼 마음껏 담아 구매 가능하다.

든든함과 가성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노브랜드 밀키트 신상품 ‘노브랜드 순두부찌개’, ‘노브랜드 간편즉석떡볶이’도 출시한다. 순두부찌개는 채소, 순두부, 계란, 고추기름을 넣은 정통 레시피이며, 간편즉석떡볶이는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는 소스가 동봉돼 취향에 따라 조리가 가능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에너지 신기술 조명 ‘BIXPO 2025’ 막내려

국내외 2만2000명 방문…5360만달러 수출 계약성과

한국전력은 지난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국내외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BIXPO 2025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라는 주제를 기치로 에너지와 기술·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기술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TEDx KEPCO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신기술 전시회는 ‘한전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 리더관’을 통해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였다.

‘재생가능하고 더 똑똑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한 ‘한전관’

은 IDPP, SEDA, ADMS 등 한전 신기술들을 T-OLED 기법으로 공개했고 ‘지역 특화산업관’은 지역 산업, 기술, 인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리더관’은 스토어닷, 리베리온 등 6개 유니콘 기업과 2026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41개의 세션으로 국제컨퍼런스가 열려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공기업 최초로 열린 ‘TEDx KEPCO’에는 AI·인문 등 6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위기, 인간관계, 사회적 불균형 등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를 조명하고 다양한 해결 방향을 공유하여 큰 반응을 얻었다.

BIXPO 2025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 7개국 17개사 23명과 국내기업 34개사가 참여해 총 116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수출계약과 MOU 13건을 포함해 총 5360만달러 규모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



지난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국내외 약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케아, 29일부터 광주 팝업스토어 2라운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9일부터 9층에서 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IKEA)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상반기에 이어 두번째 마련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400여개 베스트셀러와 실

고객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케아 패밀리에 신규가입을 하면 특별가 혜택과 결제금액의 2%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또 29~30일 이틀간 이케아 인형 친구들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케

아 소프트웨어와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1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SNS 핫아이템인 도넛조명, 바름 블리스트, 구스타프 빈테르핀트 컬렉션 등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럭키드로우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홈퍼니싱 제품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재방문 시 사용가능한 3000원 할인쿠폰 및 온라인 무료배송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